

서하와 비서감의 또 다른 단군신화*

선 석 열**

【국문초록】

『삼국유사』 『제왕운기』에 인용되어 있는 『단군기』 『단군본기』에서 전하는 단군과 하백의 혼인설화는 또 다른 단군신화로서 연장된 것이다. 그것이 본고가 추구한 것이다. 단군과 혼인관계를 맺은 하백은 서하와 비서감의 지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명의 위치를 각각 송화군과 박천군에 비정하였다. 즉 『단군기』 『단군본기』는 동일한 사서가 아니었다. 계보관계의 측면에서 『단군기』 『단군본기』의 편찬 시기를 가늠해 보았다. 『단군기』가 '고기'보다 후일의 사향으로 선후관계를 이루었던 점에서 같은 역사서였다. 『단군본기』는 『구삼국사』와 연관된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1199년 무렵에 저술된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고기'는 『단군기』로서 류경이 1276년(충렬왕 2) 감수국사로 복직된 이후에 편찬한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고기'는 『단군기』이며 환인-[환웅=웅녀]-[단군왕검=서하하백녀]-부루의 계보를 잇고 있다. 『삼국유사』가 단군의 도읍을 서경으로 삼고 있다. 반면에, 『제왕운기』는 『구삼국사』의 본기와 『단군본기』를 인용하여 환인-환웅(단웅천왕)-(?)-[손녀=단수신]-[단군=비서감하백녀]-단군의 계보를 잇고 있으며 그 중심은 영변의 태백산을 가리키고 있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의 단군신화는 서로 다른 단군신화를 전한 것이며, 『단군기』 『단군본기』의 단군과 하백의 혼인은 단군신화를 확대하였다. 단군신화에 전하는 풍백·우사·운사가 신화로 존재하였다면, 그중에서 풍백이라는 명칭과 하백의 칭호를 대조해 보았다. 중앙에 있었던 존재가 풍백·우사·운사라면, 지역명을 띠고 있는 하

* 이 논문은 흥익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 부경대학교 사학과 강사

백은 여러 지역에 존재한 지배자였다. 지역의 하백을 비롯한 집단이 중앙의 단군과 세력을 연대한 정치적 상황을 반영해주는 사례였다. 단군과 하백의 혼인관계는 고조선의 지배구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고조선의 영역이나 대외관계에 집중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본고에서 추구한 서하와 비서갑 지역의 하백과 단군의 혼인에 대한 연구는 왕실의 혼인을 비롯하여 고조선 내부의 세력 관계를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주제어】

서하, 비서갑, 하백녀, 혼인, 단군신화, 연장

◆ 차례

1. 머리말
2. 서하와 비서갑의 위치 비정
3. 서하 하백과 비서갑 하백의 위상
4. 맺음말

1. 머리말

일반적으로 문헌 기록에 전하는 한국고대의 건국신화는 시조의 탄생과 건국을 중심으로 되어 있으나, 광개토왕릉비에 전하는 고구려 시조 주몽신화에는 건국 시조 주몽의 탄생과 건국과정을 서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들 유리류의 계승과 이후의 세계까지 포함되어 있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전하는 단군신화도 단군의 탄생과 건국과정 그리고 치세를 서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부루의 탄생을 추가함으로써 신화의 연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의하면 단군신화는 서로 다른 내용으로

전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유사』에는 환웅과 웅녀의 혼인에 의한 단군의 출생을 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왕운기』에는 환웅의 손녀와 단수신의 혼인에 의한 단군의 탄생을 전한다. 그러면서 두 사서에는 공통적으로 단군과 하백녀의 혼인에 의한 아들 부루의 탄생을 전하여 단군신화가 연장되어 있는데, 단군과 혼인한 하백녀의 출신지가 서하와 비서잡으로 되어 있다. 『단군기』와 『단군본기』의 단군 혼인을 부가하면 단군신화는 보다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하는 『삼국유사』에 인용된 『檀君記』에 등장하고, 비서잡은 『제왕운기』에 인용된 『檀君本紀』에 등장한다. 이 두 기록에서 단군이 하백녀와 혼인하여 낳은 아들이 부루라는 점은 같지만, 하백녀의 출신지역은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점이 주목되는 바이다.

20세기 초반부터 일본인에 의해 진행된 기존의 연구에서는 『단군기』와 『단군본기』를 같은 책으로 보는 경향이 일반적이었으며,¹⁾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고기』조차 『단군고기』로 이해하면서 고구려조의 『단군기』와 같은 책으로 보기도 하였다.²⁾ 이후의 연구에서 『삼국유사』에 인용된 자료를 보면 원문을 변형하거나 심지어 조작한 경우가 종종 확인된다는 점에서 몇 글자 다르다고 해서 『단군기』와 『단군본기』가 다른 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³⁾ 이는 『단군

1) 小田省吾, 「《謂ゆる檀君傳説に就て》, 『文教の朝鮮』 2(日本: 朝鮮教育會), 1926 ; 今西龍, 「檀君考」, 『青邱說叢』, 1929 ; 『朝鮮古史の研究』(日本: 近澤書店), 1937.

2) 高橋亨, 「三國遺事の註及檀君傳説の發展」, 『朝鮮學報』 7(日本: 朝鮮學會), 1955.

3) 김정배, 「단군기사와 관련된 “고기”의 성격」, 『한국상고사의 제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최병현, 「단군인식의 역사적 변천」, 『단군—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 이강래, 『삼국사기 전거론』, 민족사, 1996 ; 김성환, 『단군시대의 단군전승과 인식』, 경인문화사, 2002 ; 리상호, 「단군고(檀君考)」, 『고조선에 관한 토론 논문집』, 과학원출판사, 1963 ; 김남중, 「『제왕운기』에 인용된 단군본기의 저자와 성격」, 『한국학연구』 74,

기』와 『단군본기』에서 각각 서하와 비서갑이라 명기한 하백의 출신지에 대한 위치를 비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서하와 비서갑 두 지명에 대한 위치를 비정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필자는 두 사서에 등장하는 하백녀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서하와 비서갑의 지명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였으나,⁴⁾ 본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추구해 볼 것이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서하와 비서갑을 중심으로 단군신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서하와 비서갑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비정해 보겠다. 이들 지명의 비정은 『단군기』와 『단군본기』가 각각 별개의 사서임을 밝히는 것이며 편찬 시기에 대해서도 다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기초 작업이기도 하다.

둘째, 각각의 지역에 존재한 하백의 위상을 단군신화의 내용과 대조하여 밝혀보겠다. 『단군기』와 『단군본기』에 등장하는 단군신화의 일정 부분에 대해 검토해볼 것이다. 고구려 주몽신화의 하백과 달리 고조선 단군신화의 하백은 풍백·우사·운사와 함께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겠다. 서하와 비서갑 지역의 하백에 대한 연구는 고조선 내부의 세력관계를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2. 서하와 비서갑의 위치 비정

『삼국유사』가 인용한 『고기』의 단군신화에서 전하는 혼인전승은 환인의 서자 환웅이 천강하여 만난 웅녀와의 사이에서 단군을 탄생하기까

2020.

4) 선석열, 「단군-부루-주몽 계보의 역사성과 하백녀」, 『한일관계사연구』 77, 2022.

지 전하는 것이다. 이에 후속하여 단군과 하백녀의 혼인설화가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가)-1 ① 『國史』 「高麗本記」에 이르기를, ... 이때 (金蛙)王은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만나서 사정을 물었더니,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본시 河伯의 딸로서 이름은 柳花인데 여러 아우들과 함께 나와 놀던 중, 때마침 한 사나이가 있어 天帝의 아들 解慕漱라고 자칭하면서 나를 유인하여 웅신산 아래 압록강 강변의 방 속에서 사통하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다.’[세주 : ② 『壇君記』에 이르기를 “(壇)君이 西河 河伯의 딸과 상관하여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夫妻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⁵⁾

가)-1의 본문 ①에서 『삼국유사』 왕력에서 『삼국사기』를 인용하여 해모수가 河伯女 즉 하백의 딸 유화와 사통하여 주몽을 낳았다고 한 다음, 『삼국유사』 고구려조에서 가)-1의 세주 ②에서 『단군기』를 인용해서는 단군이 서하의 하백의 딸과 상관하여 아들 부루를 낳았다고 하였다. 이들 기록을 통해 보면 가)-1의 본문 ① 고구려의 주몽신화에서 해모수의 아들인 주몽의 어머니가 하백의 딸로 되어 있고 가)-1의 세주 ② 단군신화⁶⁾에서도 단군의 아들인 부루의 어머니가 하백의 딸로 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으로 가)-1의 세주 ②의 단군신화에서는 서하의 하백이라 하여 지명을 관칭하여 하백의 딸의 출신지가 서하로 명기되어 있으나, 가)-1의 본문 ①의 주몽신화에서는 그냥 하백이라고만 하여 지명이 관칭되어 있지 않는 점에 차이가 있다.

-
- 5) 『삼국유사』 권1, 기이1, 고구려조. 國史高麗本記云, ... 于時王得一女子於太伯山南優渤水, 問之云, ‘我是河伯之女, 名柳花, 與諸弟出遊, 時有一男子, 自言天帝子解慕漱, 誘我於熊神山下鴨綠邊室中, 知(私)之, 而往不返.’ [세주 : ‘壇君記云 “君與西河河伯之女要親, 有產子, 名曰夫妻.”]
- 6) 『삼국유사』 권1, 기이1, 고조선단군왕검조에 인용된 ‘고기’에 기록된 것을 단군신화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개 한국고대의 신화에는 혼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권, 고구려조에 전하는 가)-1의 세주 ② 단군의 혼인 기록도 단군신화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설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하백녀의 출신지가 西河로 명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려사』에 의하면 서하와 관련된 기록이 있다.

가)-2 풍주(豐州)는 본래 고구려 구을현(仇乙縣)[세주 : 굴천(屈遷)이라고도 한다.]으로, 고려 초에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성종 14년(995)에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켰다. 현종 9년(1018)에 군급으로 강등되어 방어사(防禦使)를 두었다. 별호(別號)는 서하(西河)이다[세주 : 成廟(성종) 때 정하였다.]. 초도(椒島)·석도(席島)가 있다. 속군(屬郡)이 1개, 속현(屬縣)이 5개이다.⁷⁾

가)-3 건국 초기에 南道의 水郡에 12倉을 두었는데, 충주는 덕흥장, ... 또 서해도 장연현에 안란창을 설치하고, 장에는 판관을 두었다. ... 성종 11년(992)에 조세를 개경까지 운송하는 조운선에 지불할 배삯을 정하였다. ... 9석에 輸京價가 1석인 곳은, ... 西河郡浦[세주 : 이전 호칭은 豐州이다.]이다.⁸⁾

위의 기록을 살펴보면 후삼국을 통일한 후에 태조는 재위 23년(940)에 전국의 州府郡縣의 명칭을 고쳤고, 성종이 다시 주부군현과 關防, 驛站, 江河, 浦口의 명칭을 고쳐 마침내 전국을 10道로 나누고 12州에 각각 節度使를 두었다. 현종 이후로 전국을 五道 兩界로 정하였는데, 고려시대에는 서해도와 양계에 방어책임자 겸 지방관으로 파견되었다. 또한 풍주의 별호가 서하이다. 그 별호 서하는 성종 때에 조운제도를 개정하면서 풍주의 서하군포를 조운창으로 삼았고, 그로 인해 풍주의 별호로 정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서하의 현재 위치는 황해남도 과일군 풍해면에 해당하며, 과거에는 송화군으로 알려져 있다.⁹⁾ 자연지리적으로 보면

7) 『高麗史』 卷58, 志12, 地理3, 西海道 豐州. “豐州本高句麗仇乙縣[세주 : 一云屈遷], 高麗初, 改今名. 成宗十四年, 陞爲都護府. 顯宗九年, 置防禦使. 別號西河[세주 : 成廟所定]. 有椒島·席島. 屬郡一, 縣五.”

8) 『高麗史』 卷79, 志33, 食貨2 漕運. “國初, 南道水郡, 置十二倉, 忠州曰德興, ... 又於西海道長淵縣, 置安瀾倉, 倉置判官. ... 成宗十一年 定漕船輸京價. ... 運九石, 價一石, ... 西河郡浦[세주 : 前號豐州].”

이 지역은 황해남도의 서북부에 위치하고 황해와 접하고 있으며, 송화군의 북쪽 석도 등의 섬이 대동강 하구에 있어 바다와 강의 수운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삼국유사』에서는 고조선단군왕검조¹⁰⁾에 인용한 『고기』의 단군신화에서 전하는 환웅과 웅녀의 혼인전승에 이어 고구려조에서 『단군기』의 혼인전승을 주석으로 인용하여 가)-1과 같이 단군과 서하 하백녀의 혼인과 아들 부루의 탄생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제왕운기』에도 단군의 혼인전승으로서 『단군본기』를 인용하여 단군과 하백녀의 혼인설화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가)-4 먼저 부여[세주 : 『檀君本紀』에 이르기를, [필자 주 : 단군은] “非西岬 河伯의 딸과 혼인하여 사내아이를 낳아 夫妻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다.]¹¹⁾

가)-5 산천조에 묘향산은 (영변도호)부의 동쪽 130리에 있다.[세주 : 일명 태백산이라고도 한다.] 고적조에 옛 위주이다[세주 : 부의 서북쪽 40리에 있다.] ... 태백산이 있다.[세주 : ... 단군이 비서잡의 하백의 딸에 장가들어 夫妻라는 아들을 낳았다]¹²⁾

가)-6 처음에 누가 나라를 세워 세상을 열었는가? 釋帝의 자손으로 이름은 단군이라네[세주 : 본기에서 이르길, “상제 환인에게 서자가 있었으니 웅이라 불렀다고 한다. 일컬어 이르기를, ‘삼위 태백에 내려가서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할지어다’고 하였다. 이에 웅이 천부인 3개를 받아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 정상에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이를 일컬어 단웅천왕이라 이른다’고 하였다. 손녀에게 약을 마시게 하여 사람의 몸이 되게 하였다. 단수신과 혼인하여 남자아이를 낳았으니, 이름이 단군

9) 여기서는 편의상 송화군으로 하겠다.

10) 이하 고조선조라 약칭

11) 『제왕운기』 卷하, 因分此地爲四郡. 先以扶餘[세주 : 檀君本紀曰, “與非西岬河伯之女婚而生男, 名夫妻.”]

12)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4, 平安道 寧邊大都護府, 山川條. “妙香山, 在府東一百三十里[세주 : 一名太伯山].” 동 고적조. “古渭州[세주 : 在府西北四十里.]” ... “太伯山[세주 : ... 檀君娶非西岬河伯之女, 生子曰夫妻 ...].”

이었다. 조선의 땅에 거하여 왕이 되었다. 이에 시라 고례 남 북옥저 동 북부여 예와 맥이 모두 단군의 수역이었다. 1038년을 다스리다가 아사 달산에 들어가서 신이 되었으니 불사의 존재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¹³⁾

가)-4는 『제왕운기』 사군조로서 먼저 『단군본기』를 인용하여 단군이 비서갑 하백의 딸과 혼인하여 부루를 낳았다고 하였다. 『제왕운기』에 인용된 『단군본기』는 단군이 혼인한 여자의 아버지 하백의 출신지를 비서갑이라 하였다. 비서갑은 고려시대의 사서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5의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고려시대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서갑의 위치를 평안도 渭州의 옛 지명, 즉 영변도호부의 서북쪽 40리에 비정하고 있다.¹⁴⁾ 조선후기 영조대에 편찬된 『여지도서』에도 고려시대의 사실을 상세히 인용하여 비서갑이 평안도 영변으로서 단군의 사적이 전하고 있다고 하였다.¹⁵⁾ 묘향산이 영변의 도호부청에서 동쪽 130리 떨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영변군의 동쪽은 평안남도 영원군과 희천군에 가깝다.¹⁶⁾ 따라서 영변도호부는 渭州와 連州가 합쳐진 것이다. 고

13) 『제왕운기』 권하, 동국군왕개국연대, 전조선기 “初誰開國啓風雲，釋帝之孫名檀君[세주：本紀曰，‘上帝桓因，有庶子，曰雄云云。謂曰，‘下至三危太白，弘益人間敷。’故雄，受天符印三箇，率鬼三千，而降太白山頂神檀樹下，是謂檀君。據朝鮮之域，爲王。故尸羅，高禮，南北沃沮，東北扶餘，穢與貊，皆檀君之壽也。理一千三十八年，入阿斯達山，爲神，不死故也。]”

1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4, 平安道 寧邊大都護府, 山川條. “妙香山, 在府東一百三十里[세주：一名太伯山].” 동 고적조. “古渭州[세주：在府西北四十里].” … “太伯山[세주：… 檀君娶非西岬河伯之女，生子曰夫妻 …].”

15) 『輿地圖書』 상(한국사료총서 제20집), 平安道 寧邊 古跡. “在府西北四十里 … 太伯山, 古記昔有天神桓因，命庶子雄持天符三印，率徒三降於太白山頂神檀樹下，謂之神市，主人間三百六十餘事，時有一熊常視于神願作人身，神遺靈藥使食熊食之化爲女神，因假化爲昏而生子，是爲檀君，立國號曰朝鮮，檀君娶非西岬河伯之女，生子曰夫妻”

16) 기왕의 견해에서는 『단군기』와 『단군본기』를 같은 사서로 보는 경향이 강

려시대의 군현들은 주속관계나 읍격의 변동이 잦은 편이라 일일이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고을 단위로 군이 비정하자면 비서갑은 위주가 아니라 그 서쪽에 위치한 연주에 해당되며¹⁷⁾ 묘향산은 동부의 위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비서갑이 영변의 도호부청에서 서쪽 40리 떨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묘향산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며, 영변군 서북쪽의 박천군·태천군에 가깝다. 이러한 점에서 보아 비서갑은 청천강과 그 지류인 대령강에 가까운 곳이다.

가)-6의 세주의 기록은 ‘본기’에서 인용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단군에 대한 것으로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가)-4 자료와 마찬가지로 『단군본기』로 보아도 무방하다. 본기란 기전체 사서로서 일국의 왕이나 황제에 대한 기록에 쓰인다는 것으로, 가)-6은 단군의 일대기를 서술하고 있는 점에서 『단군본기』로 볼 수 있다. 가)-4에서는 『단군본기』의 인용문에서 비서갑 하백의 딸과 결혼한 단군의 이름을 생략하고 있을 뿐이다.

『제왕운기』에 인용된 이러한 글과 비슷한 내용이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전한다. 지리지의 평양부 靈異 항목에 『단군고기』라고 하여 그 내용이 인용되어 있는데,¹⁸⁾ 『단군본기』와 『단군고기』는 같은 문헌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과¹⁹⁾ 새로운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별개의 문헌이라는

하였다(今西龍, 앞의 책, 1937, 19~26쪽). 이러한 인식은 서하와 비서갑의 위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지명의 위치 비정을 통해 볼 때 『단군기』와 『단군본기』에 등장하는 단군과 혼인하였다는 하백녀의 출신지는 각기 위치가 다른 지역이므로(선석열, 앞의 논문, 2022, 81쪽), 두 사서는 별개의 사서이며 각기 다른 단군 전승기록임을 알 수 있다.

- 17) 『高麗史』 卷58, 志12, 地理3, 北界 安北大都護府 延州. “延州本高麗密雲郡 [세주 : 一云安朔郡]. 光宗二十一年, 更今名, 爲知州. 成宗十四年, 爲防禦使. 恭愍王十五年, 陞延山府.”
- 18) 『世宗實錄』 卷154, 지리지 평안도 평양부 영이조. 『檀君古記』云 “上帝桓因有庶子, 名雄, 意欲下化人間, 受天三印, 降太白山神檀樹下, 是爲檀雄 天王. 令孫女飲藥成人身, 與檀樹神婚而生男, 名檀君, 立國號曰朝鮮. … 檀君聘娶非西岬河伯之女生子, 曰夫妻”

의견이²⁰⁾ 있다. 또는 『세종실록』의 편찬자가 대체로 『제왕운기』를 참조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²¹⁾ 『세종실록』 지리지에 언급된 『단군고기』²²⁾에도 가)-6과 마찬가지로 상제, 환인, 단웅천왕, 태백산 신단수, 사람으로 변한 손녀, 단수신과 손녀의 결혼과 단군의 출생 단군의 후예들, 부루에 대한 언급이 있다. 『단군고기』의 손녀 표현은 웅녀의 오기 또는 오각으로도 보는데,²³⁾ 두 기록에 공통적으로 손녀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부루의 탄생은 삼국유사에 인용된 『단군기』에도 보인다. 여기에서는 단군과 서하 하백의 딸 사이에서 부루가 태어났다고 되어 있다.²⁴⁾ 비서갑 대신 서하로 언급된 점이 다르나, 『삼국유사』에 인용된 자료를 보면 원문을 변형하거나 심지어 조작한 경우가 종종 확인된다는 점에서 몇 글자 다르다고 해서 『단군기』와 『단군본기』가 다른 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제왕운기』와 달리 『삼국유사』는 단군의 한자 檀君을 壇君으로 쓰고 있는데, 고조선조의 표기를 기준으로 하여 통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서하와 비서갑의 지명을 구체적으로 비정해 보면, 새로운 단군신화의 혼인을 전한 『단군기』와 『단군본기』는 책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단군의 혼인을 통해 낳는 아들이 부루인 점은 같으나, 그 혼인과 관련된 하백의 출신지라고 전하는 서하와 비서갑 두 지명의 위치가 다른 점에서 『단군기』와 『단군본기』는 동일한 사

19) 서영대, 앞의 논문, 1994, 53쪽.

20) 김성환, 앞의 책, 2002, 59~60쪽.

21) 이종욱, 「고조선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 『한국 고대사의 새로운 체계』, 소나무, 1999, 132쪽.

22) 『세종실록』 권154, 지리지, 평안도 평양부, 靈異.

23) 주승택, 「북방계 건국신화의 체계에 대한 시론」, 『관악어문논집』 7, 1982, 479~483쪽 ; 최병헌, 앞의 논문, 1994, 151~152쪽.

24) 『삼국유사』 권1, 기이1, 고구려조, “단군기운” 각주 4)와 같음

서가 아니라 다른 책으로 볼 수도 있다.²⁵⁾

먼저 『단군기』에 대해 언급하겠다. 고조선조의 '고기'에서 환웅과 웅녀 사이에 단군을 낳았다고 하고, 위의 고구려조에서 『단군기』는 단군과 서하 하백의 딸과 혼인하였다고 전하였음에서 『단군기』가 '고기'의 기록보다 후일의 사항으로 전함에서 선후관계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조선조의 '고기'에서 출생한 단군은 평양성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하였다. 또 도읍을 백악산아사달에 옮겼는데, 그 후 1,500년간 나라를 다스렸다. 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단군은 곧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뒤에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 산신이 되었으니 나이가 1,908세다²⁶⁾라고 그의 일대기를 서술한 다음, 단군의 후계에 대해서는 고구려조에서 단군이 하백녀와 관계하여 부루를 낳았음을 전하였는데, 인용된 책이름을 『단군기』라고 하였다. 고조선조에서 '고기'를 『단군고기』로 파악하거나²⁷⁾ 안홍의 『삼한고기』로 보거나²⁸⁾ 『단군본기』라고 파악한 견해가 있으나,²⁹⁾ 위에서 살펴본 바 해당 '고기'의 정확한 책이름이 『단군기』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서 고구려조에서는 선후관계에 있는 단군 관련 기록을 『단군기』라고 명시하였으나, 고조선조에서는 정작 해당 기록을 '고기'라고만 표시하였던 것이다.³⁰⁾

다음 『단군본기』에 대해 언급하겠다.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단군이 출생하였다고 전한 『단군기』의 내용을 인용한 『삼국유사』와 달리,

25) 선석열, 앞의 논문, 81~82쪽.

26) 『삼국유사』 권1, 기이1, 고조선단군왕검조.

27) 今西龍, 앞의 책, 1937, 12~13쪽.

28) 김정배, 앞의 논문, 1987, 166쪽.

29) 이강래, 앞의 책, 1997, 193쪽.

30) 『삼국유사』에서 또다른 예를 들자면, 북부여조에서 동명제 즉 주몽이 북부여에서 일어나 졸본부여를 세운 사실을 기록하였다. 이 경우에도 인용한 책도 '고기'라고 하였으나, 고조선조의 '고기'와 다른 책임은 자명하다. 이 부분은 『동명왕편』의 주석에 인용된 『구삼국사』 본기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가)-6 『제왕운기』의 初誰開國啓風雲조에서 환웅의 손녀가 단수신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다고 하고 사군조에서 『단군본기』를 인용하여 단군이 비서갑 하백의 딸과 혼인하였다고 하였다. 『제왕운기』는 『구삼국사』 본기의 단군신화를 전하면서 『단군본기』를 인용하여 단군이 아들 부루를 낳았다고 하였다. 『제왕운기』는 단군 관련 기록을 ‘고기’가 아니라 『구삼국사』의 본기라는 구체적인 서명을 제시하였다. 두 사서에서 단군신화를 서술하는 데에 있어 단군과 하백녀 사이에 아들 부루를 낳았다고 전하는 점은 공통성이 있기는 하나 단군의 출생에 대해서는 전혀 별개의 전승을 가지고 있었다.

『단군본기』와 『단군기』 두 사서의 편찬시기도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관련 지명의 변천으로 해당 사서가 언제 편찬되었는가를 살펴보게 된다. 『단군기』의 지명 서하는 고려 성종대에 조운제도의 정비에서 서하군포로 등장하고 있고 송화군의 雅名인 서하로 전해졌다. 서하군포라는 행정지명으로 지정하기 이전에는 郡浦라는 지명어미를 제외한 서하가 원래 그곳의 자연지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³¹⁾ 『단군본기』의 지명 비서갑은 행정지명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자연지명이 계속 유지되었으므로 그러한 지명의 변천을 찾아볼 수 없다. 지명의 변천으로서는 두 사서의 편찬시기를 가늠할 수 없으므로 다른 요인을 통해 살펴보겠다.

서하 지명의 변천으로 본다면 『단군기』의 편찬시기 상한을 가늠할 수 없고, 지명의 변천이 없던 비서갑으로 『단군본기』의 편찬시기의 상한도 가늠할 수 없다.³²⁾ 과거 일제 식민사학에서 ‘고기’에 대해 단군의

31) ‘河’의 용례를 볼 경우 11년(468) 가을 9월에 하슬라 사람 가운데 15세 이상인 자를 징발하여 泥河에 성을 쌓았다는 기록(『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이 가장 빠르다.

32) ‘岬’이라는 지명의 어미가 사용된 예를 보면, 『삼국사기』 권35, 잡지4, 지리2, 한주조에 “松岳郡 본래 고구려의 扶蘇岬이었으며, 효소왕(孝昭王) 3년(694)에 성을 쌓았다.”고 하며, 신라 中祀에 四鎮의 하나인 西鎮의 加耶岬岳

존재를 부정하려는 의도 아래 ‘고기’의 사료적 가치를 부정하였다.³³⁾ 그 중에서도나마 今西龍은 고조선조의 ‘고기’를 고려 문종 말에서 예종 무렵 까지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전반 사이, 즉 인종대부터 고종대 무렵에 찬술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이때가 왕김선인에 단군이라는 호칭이 붙게 된 때라고 했다.³⁴⁾ 이에 대한 재비판과 함께 본격적인 해명 작업은 전거론의 측면에서 시도하고,³⁵⁾ ‘고기’의 실체에 구체적으로 다가가려는 성과들이 축적되어 고기를 글자의 뜻과 같이 옛 기록을 가리키는 보통명사라는 시각과 11세기 전반부터 12세기 중반 사이에 서술한 작자 미상의 역사서로서의 『고기』를 가리킨다는 시각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³⁶⁾ 필자는 문화현 출신의 류경이 영변군의 비서갑과 관련되기보다 자신의 연고와 가까운 송화군의 서하와 관련되는 『단군기』를 편찬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단군기』는 류경이 1276년(충렬왕 2) 감수국사로 복직된 이후였다고 생각된다.

『단군본기』의 편찬시기에 대해 본기라는 서목에 주목하여 고려 초 『구삼국사』에 실린 것이라는 견해³⁷⁾와 『삼국사기』 편찬 직전인 12세기 무렵,³⁸⁾ 『구삼국사』 단계에 동명왕을 추앙했으나 단군을 민족시조로 보는

(동권31, 잡지1, 제사) 등 삼국시대부터 등장하고 있다.

33) 那珂通世, 「朝鮮古史考-朝鮮古史史籍考」, 『史學雜誌』 5-3(日本: 日本史學會), 1894; 白鳥庫吉, 「檀君考」, 『學習院輔仁會雜誌』 28(日本: 學習院大學輔仁會), 1894; 小田省吾, 「『謂ゆる檀君傳説に就て』, 『文教の朝鮮』 2(日本: 朝鮮教育會), 1926; 今西龍, 앞의 책, 1937.

34) 今西龍, 앞의 책, 1937, 23쪽.

35) 이강래, 앞의 책, 1997, 150~203쪽; 김성환, 「『삼국유사』 「고조선」조의古記論」, 『선사와 고대』 69, 2022.

36) 이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김상현, 「『古記』의 사학사적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74, 2014 및 김성환, 위의 논문, 2022가 참고된다.

37) 리상호, 앞의 논문, 1963, 184~185쪽; 김정배, 앞의 논문, 1987, 162, 165쪽; 이도학, 「단군 국조 의식과 경역 인식의 변천-『구삼국사』와 관련하여-」, 『한국사상사학』, 2012, 387~392쪽.

38) 오강원, 「전근대시기 단군 세계 인식의 확대 과정과 맥락」, 『진단학보』

관념은 없었다고 판단하여 충렬왕 때에 원의 공납 요구로 오양우 등이 편찬한 『국사』의 일부이며,³⁹⁾ 특히 문화현 출신의 류경이 쓴 것으로서 제자 이승휴가 『제왕운기』에 인용하였다⁴⁰⁾는 견해 등이 있다. 이는 『단군기』와 『단군본기』가 동일한 역사서로 보는 시각에서 나온 것이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서하와 비서잡의 위치가 다른 점을 염두에 두면 양 사서는 다른 사서이고 단군신화의 내용이나 성격이 다르다.

이들 두 가지의 단군신화를 비교해 보면 전자의 『삼국유사』는 환웅과 웅녀라는 異類婚의 전승을 그대로 전한 반면에, 후자의 『제왕운기』는 유교사관의 입장에서 이를 황탄하다고 여겨 손녀에게 약을 먹여 단수신과 혼인한 것으로 변개한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해모수·주몽, 부루-금와라는 부여계통의 계보 인식이 있었으나, 단군-부루 계보가 등장하지는 못하였다. 단군신화의 내용으로 보면 『삼국유사』는 ‘고기’ 즉 『단군기』를 인용하여 환인-[환웅=웅녀]-[단군왕검=서하하백녀]-부루의 계보를 잇고 있으며 이로써 단군(해모수)→부루·주몽으로 이어지는 고조선→북부여→동부여·고구려의 역사계승관계가 성립되었다.⁴¹⁾ 『삼국유사』가 단군의 도읍을 서경으로 삼고 있는 반면에, 『제왕운기』는 『구삼국사』의 본기와 『단군본기』를 인용하여 환인-환웅(단웅천왕)-(?)-[손녀=단수신]-[단군=비서잡하백녀]-단군의 계보를 잇고 있으며 특정 지역을 도읍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비서잡을 통해 보면 영변의 태백산을 가리키고 있다. 『단군본기』의 구체적인 편찬 시기는 『구삼국사』와 연관된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1199년 직전에 저술된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당시 단군을 민족시조로 보는 관념은 찾을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124, 2015, 5~6쪽.

39) 정구복, 「고려 초기의 《삼국사》 편선에 대한 일고」, 『국사관논총』 45, 1993, 184쪽 ; 서영대, 앞의 논문 1994, 65~70쪽.

40) 김남중, 앞의 논문, 2020, 26~27쪽.

41) 김성환, 앞의 논문, 2022, 30~31쪽.

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 유보한다.

지금까지 검토해 본 바와 같이 관련 지명의 위치 비정으로 인해 단군이 하백과 혼인하였다는 전승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전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단군신화의 하백은 주몽신화의 하백과 달리 지명을 관칭한 점에서 하백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추구하고자 한다.

3. 서하 하백과 비서잡 하백의 위상

일반적으로 주몽신화에 의하면 하백녀 즉 하백의 딸이 혼인한 남성은 해모수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주몽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 이와 같이 알고 있었다. 그런데 『단군기』와 『단군본기』의 단군전승에 의하면 하백녀가 단군과 혼인하여 아들 부루를 낳았다고 전하고 있어 기존의 하백에 대한 이해가 사뭇 다르게 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욱이 기왕의 연구는 대부분 전자에 대해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후자에 대한 연구성과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여기서 잠시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은 ‘河伯女’와 ‘河伯之女’라는 표현에 차이가 있는가 살펴보자. 양자는 서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하백녀는 해모수뿐만 아니라 단군과도 혼인한 존재라는 점에서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를테면 하백이 남성 하백이고 하백녀를 여성 하백으로 하여 보통명사의 여성 신격이라고 보았다.⁴²⁾ 고대의 계보 기록을 일별해 보면 ‘인명+之女’ ‘○○王之女’와 같이 ‘~之女’라고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王女’ 또는 ‘인명+女’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42) 이지영, 「河伯女, 柳花를 둘러싼 고구려 건국신화의 전승문제」, 『東아시아 古代學』 13, 2006, 26쪽.

들면 ‘助賁王之女’⁴³⁾를 ‘助賁王女’⁴⁴⁾로 ‘金運公之女’⁴⁵⁾를 ‘一吉澹金欽運女’⁴⁶⁾로 표기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계보상의 ‘河伯女’와 ‘河伯之女’를 서로 다른 것으로 볼 수 없다.⁴⁷⁾ 다시 말하면 助賁王女를 여자 조분왕으로 해석할 수 없듯이, 단군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은 河伯女는 여자 하백이 아니라 하백의 딸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주몽의 어머니 이름의 변화가 5세기의 『광개토왕릉비』와 『위서』에서 ‘河伯女(郎)’로 표기하였고 12세기의 『삼국사기』와 『동명왕편』에서 ‘河伯之女 柳花’로 13세기 말엽의 『제왕운기』에서는 ‘柳花’로 변화되었다⁴⁸⁾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 이름의 표기가 점차 구체화된 이후 일반화되어 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군기』와 『단군본기』를 참고하여 단군신화와 주몽신화를 비교할 경우, 다음 몇 가지에서 차이가 난다. 먼저 시간상으로 볼 경우 단군신화는 주몽신화보다 오래된 신화이다. 등장인물로 河伯의 경우 주몽신화에는 지명이 없이 단일한 하백으로 되어 있으나, 단군신화에는 서하의 하백과 비서갑의 하백과 같이 지명을 관칭하고 있다. 혼인관계로서 볼 경우 단군신화에는 단순히 혼인과 아들의 출생만 서술하였으나, 주몽신화에는 혼인과정과 건국과정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들 신화에 河伯과 그의 딸 河伯女가 등장한다. 河伯은 원래 중국신화에서 黃河의 水神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⁴⁹⁾ 고대 한국신화에서도 河伯이 등장하고 있다. 주몽신화와 단군신화의 구성 요소를 비교하면서 주몽신화가 天帝신앙과 水神신앙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며, 주

43) 『三國史記』 권2, 신라본기2, 미추이사금 즉위조.

44) 동권2, 흘해이사금 즉위조.

45) 『三國遺事』 권1, 왕력 제삼십일 신문왕조.

46) 『三國史記』 권8, 신라본기8, 효소왕 즉위조.

47) 선석열, 앞의 논문, 2022, 89~90쪽.

48) 이지영, 위의 논문, 2006, 23쪽.

49) 遠珂, 『中國神話通論』, 巴蜀書社(중국 : 成都), 1993, 230쪽.

몽세력이 水神的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⁵⁰⁾ 그러나 『단군기』와 『단군본기』에 단군신화에는 그러한 과정은 서술되어 있지 않고 단군과 하백의 딸이 혼인한 것만 나오고 있다.

河伯은 주몽세력의 모태가 되었던 세력이 자기 종족집단의 主神으로 水神을 모시던 것을 주몽에 의한 계루부의 고구려 건국과 이후 중국 문화가 전래되면서 河伯이라는 명칭으로 雅化시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고구려 왕실이 물 혹은 물의 신을 신성하게 여겼음은 사적의 여러 군데서 눈에 띈다. 먼저 고구려는 전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제의였던 東盟祭를 행할 때 주요 神인 穰(隴)神을 동굴에서 모셔와 國東의 水上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⁵¹⁾

한편, 고조선시기에 단군과 혼인관계로서 전승된 하백은 각각 지역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단군기』와 『단군본기』에 등장하는 하백은 서하와 비서갑이라는 각기 지명을 관칭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곳에 비정되는 점은 앞서 살펴본 대로이다. 이는 고구려의 하백이 국가적인 신격의 존재로 되어 있는 점과는 달리,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집단이 각기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해당 지역에 대한 입지조건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고조선시기의 대내외 교류 상황으로 볼 경우, 기존의 연구에서는 고조선 국내의 지역간 교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중국 왕조와의 외교관계에서 행해지는 조공무역이나 반대급부로 획득한 위세품에 대한 것이다. 출토 사례가 많은 화폐가 연의 화폐인 명도전이라는 것은 후기고조선과 위만조선시기에 고조선이 연과 교역을 활발히 하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출토지들이 산속에 위치하고 있지만, 대부

50) 조법중, 「고구려사회의 단군인식과 종교문화적 특징」, 『한국고대사연구』 21, 2001, 200~201쪽.

51) 『翰苑』 권30, 蕃夷部 高句麗. “十月會祭 祭天名曰東盟 … 穰穴神於 國東 水上祭之.”

분 강을 끼고 있어서 이곳이 주변 지역과의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다는 견해도 있다.⁵²⁾ 최근 고고학적 연구성과에 의하면, 청동기 유적 유물의 교류 네트워크는 요동 - 서북한 - 남부지역이라는 광역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⁵³⁾ 고조선의 중심지를 이동하였다는 시각에서 서북한지역이 고조선의 중심지가 된 시기는 기원전 3세기경으로 보고 있다.⁵⁴⁾ 본고가 추구하는 작은 지역간의 교류에서는 고고학적 조사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지역이 조사되어 발굴밀도가 높아야 밝혀지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 추구하는 해당 지역은 정치적인 청동기 유물의 분석보다 경제적 기반에 의한 지역간의 물류가 이루어진 측면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볼 때 고대사회에서 지역간의 물류는 대부분 강을 끼고 전개되었다. 그것은 대량 물류의 통로는 운반수단이 빈약한 육지보다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바다와 강이 훨씬 유리하였기 때문에 바다와 강이 만나는 결절지가 주변 지역과의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다. 하천을 운행하는 선박과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은 구조상으로 다르므로 강과 바다가 만나는 결절지가 중개의 역할을 하기가 용이하였던 것이다. 고조선시기 국내의 지역간 교류 역시 河川의 河口를 結節地로 하여 바다와 내륙을 잇는 공간적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서하와 같이 하구 지역은 내륙의 농산물 및 임산물이 집하됨과 동시에 바다의 어패류가 모이게 되고 이들의 다양한 물자가 교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하구에 입지한 서하지역이 중심이 되어 지리적인 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서하의 하백

52) 藤田亮策, 「朝鮮發見の明刀錢と其遺蹟」, 『京城帝大文學會論纂』 7, 1937 ; 『朝鮮考古學研究』(일본 : 高桐書院), 1948.

53) 이후석, 「북한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네트워크와 상호작용」, 『한국고대사 연구』 109, 2023, 81~84쪽.

54) 이청규, 『다뉴경과 고조선』 단국대학교출판부, 2015, 196~197쪽.

은 송화군의 남천 등의 지역 소하천을 통해 내륙의 물산이 운반되어 포구에 집산이 되면 이를 기반으로 해양으로 나아가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주도하거나 수운으로 연결되는 고조선의 중심지인 대동강으로 들어가 교역을 행하였으므로 고조선 중심부에까지 그의 존재가 알려졌을 것이다. 그러한 기반을 가진 서하의 하백은 단군과의 세력 연계가 이루어지기 위해 하백의 딸과 상관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고조선시기의 교류 상황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조선시기의 교류 상황으로 볼 경우, 기존의 연구에서는 중국 왕조와의 외교관계에서 행해지는 조공무역이나 반대급부로 획득한 위세품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고조선 국내의 지역교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고고학적 자료인 명도전의 존재를 통해 후기 고조선과 위만조선시기에 고조선이 연과 교역을 활발히 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할 뿐이다.

비서갑의 경우는 서하와 상당히 다르다. ‘岬’은 두 산 사이의 지대나 산악이 줄지어 연결되는 지대를 가리킨다. 즉 두 계곡이 합쳐지거나 두 계류가 합류되는 지점으로 각 교통로가 합치되는 지형이라 할 수 있다.⁵⁵⁾ 또한 ‘岬’자가 들어간 사찰의 위치는 당시 교통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지형적으로 사람들의 접근이 어렵지 않은 산록 저단부에 자리잡고 있다.⁵⁶⁾ ‘岬’이라는 지명의 어미가 사용된 예를 보면, 松岳郡은 본래 고구려의 扶蘇岬이었고 효소왕 3년(694)에 성을 쌓았다고 하며,⁵⁷⁾ 신라의 제사제도인 中祀 가운데 四鎮의 하나인 西鎮의 加耶岬岳은 마시산군에 있으며 웅주 이산군의 옛 지명이었다.⁵⁸⁾ 이들 지역은 국가

55) 한정호, 「신라 사찰의 사회적 기능과 가슬갑사」, 『불교미술사학』 5, 2007, 31쪽.

56) 홍광표, 「청도 가슬갑사의 입지조건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4-4, 2006, 23쪽.

57) 『삼국사기』 권35, 잡지4, 지리2 한주조.

58) 동권32, 지1 제사.

적 제사를 행하는 곳이면서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 비서갑 지역은 하천의 하구를 결절지로 하여 박천강과 청천강의 하구에 입지하였으므로, 교통의 중심이 되어 지리적인 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비서갑의 하백은 이들 하천을 통해 내륙의 물산이 운반되어 집산이 되면 이를 기반으로 해양으로 나아가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주도하거나 수운으로 연결되는 중심지인 태백산으로 나아가 교역을 행하여 그의 존재가 알려졌을 것이다. 그러한 기반을 가진 비서갑의 하백은 단군과의 세력 연계가 이루어지기 위해 하백의 딸과 혼인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서하와 비서갑의 하백과 관련하여 또 하나 언급하고자 하는 점은 단군신화에서 환웅이 거느린 신하들과 지명을 가진 하백과의 대비이다.

나)-1 환웅이 무리 三千을 이끌고 太伯山 꼭대기에 있는 神壇樹 아래로 내려와 그곳을 神市라 하였으니 이가 바로 환웅천왕이다. 그는 風伯과 雨師와 雲師를 거느리고 곡식과 생명과 질병과 형벌과 선악을 주관하고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에 살면서 교화를 베풀었다.⁵⁹⁾

나)-2 아버지(해모수)는 천궁으로 돌아가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 어머니는 우발하 맑은 물가에 살게 되었네. ... 漢 元帝 建昭 2년(B.C. 37) 갑신년에 (주몽왕이) 마한의 왕검성에서 건국하도다. 하늘에서 사람을 보내와 궁궐을 지으니, 산중이 어두워졌는데도 정소리가 들리고, 7일이 되어서야 마치므로 운무가 걷혀, 금벽을 솟구치게 하고 연마하여 새로운 하늘을 열었도다. 오이·마리와 협부 3명의 신하가 한마음으로 왕업을 돕도다. 비류국의 왕 송양이라는 자는 점잖게 개국의 선후를 다투다가, 갑자기 큰 비가 내려 (성이) 떠나려가니 온 나라가 귀부하여 충성을 맹세하도다. 천상에 왕래하면서 天政에 참여하였도다.⁶⁰⁾

나)-1의 기록에서 환웅이 거느렸다고 전하는 풍백을 비롯하여 우사

59) 『三國遺事』 권1, 기이1, 고조선단군왕검.

60) 『帝王韻紀』 권하, 고구려기.

운사는 초기고조선의 정치구조로서 이해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단군과 관련된 신화로 존재하였다면 風伯이라는 官稱과 지역 河伯의 칭호를 대조해 볼 수 있다.

풍백·우사·운사는 고대 중국의 문헌인 『周禮』·『史記』·『漢書』·『後漢書』에 신격화된 제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풍백·우사에 대해 『삼국사기』에 신격으로서의 제사 대상으로⁶¹⁾ 『고려사』에는 비바람을 관장한 신으로 되어 있다.⁶²⁾ 중국에서 표현하고 있는 제도에 나타난 명칭은 한국 고대국가에서 수용하여 그에 적합한 명칭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⁶³⁾ 그런데 이들보다 훨씬 이전인 중국 상고기 황제의 神市에 풍백·우사·운사가 관명 내지 조직명이었다.⁶⁴⁾ 풍백·우사·운사는 후대에는 신격화된 존재였으나, 상고기에는 관명으로 존재하였던 것이다. 단군신화에서는 환웅을 보좌하는 風伯·雨師·雲師는 거주지를 달리하여 분포했던 단순한 부족장의 우두머리라기보다는 환웅을 직접 보좌하는

-
- 61) 『三國史記』 권32, 잡지1, 제사조. “立春後丑日 犬首谷門祭風伯 立夏後申日 卓渚祭雨師”. 여기서 풍백제, 우사제, 영성제 등에 대한 제사는 신문왕 6년(686)에 당에서 들어온 ‘吉凶要禮’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나희라,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2003, 63쪽).
- 62) 『高麗史』 권127, 열전40, 반역 묘청전. “妙淸曰 我曾知是日有風雨 勅雨師·風伯曰 乘輿上道 勿作風雨”
- 63)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의 지명은 대부분 고려 영내의 지역을 가리킨다. 신라 경덕왕대부터 그 이전의 고유 지명을 漢化된 지명으로 개칭하여 사용하기 시작하고 고려시대의 지명은 대부분 漢化한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서하를 예로 들면, 중국의 경우 황하의 서쪽이라는 의미로서의 서하라고 하나, 고려의 경우에는 군현의 雅名으로 사용되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지명은 중국 내의 지명을 가리키지 않는다. 고려의 지명이 아닌 경우 찬자가 주석을 달아 구별하였다. 덧붙여 하백의 경우에도 중국의 용례를 고려의 사정에 맞게 적용하였다.
- 64) 이강식, 「『古記』에 기록된 神市組織의 構造와 機能」, 『경북대학교 경상대학논집』 15, 1987, 351~356쪽; 高中正·朴晟佑, 「“白”與“伯” : 用字變化의 微觀歷史」, 『중국문학연구』 85, 2021, 13~14쪽.

관계 또는 친족관계를 유지하며, 전체 사회구성원을 통제하는 지배층의 일원으로서 신시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터가 마련되었다.⁶⁵⁾ 따라서 하백의 경우도 관명이나 칭호로서 존재하다가 후대에는 신격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풍백·우사·운사 등이 중앙에 있었던 존재이고 그중에서 풍백이 ‘伯’이라는 작호로 존칭하여 표기한 점에서 雨師나 雲師보다 상위에 있는 직위라고 해석된다. 나)-2의 기록을 살펴보면 해모수와 주몽왕이 천상을 드나들었고 경쟁자 송양을 홍수로 제압하였다고 한다. 이때 풍백·우사·운사 그리고 하백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조선의 경우 하백은 지역명을 띠고 있는 점에서 지역에만 존재한 지배층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풍백과 마찬가지로 하백도 ‘伯’이라는 작호로 존칭하여 표기한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하백은 일정 지역의 지배자이지만 존칭의 작호로 불렸다고 한 점은 일반 재지 지배층보다 상위에 있는 유력한 재지 지배자로 이해된다.

고조선의 경우 지역마다 개별적으로 농업적 기반을 가진 족장들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하백도 기본적으로는 관개치수를 비롯한 농업적 기반을 가진 족장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잉여생산물의 교환이 발달하면서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류의 결절지로서 내륙의 물산이 포구에 집결되어 해양을 통한 교류가 전개되었다. 그 당시 하백이라는 존재는 이러한 물산을 관리하여 해양을 통한 교류를 주도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管子』 기록에 나타나듯이⁶⁶⁾ 중국 산둥반도의 제나라와 고조선의 무

65) 한창균, 「고조선의 성립배경과 발전단계 시론-고고학 발굴자료와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33, 1992, 31쪽.

66) 『管子』 권23, 揆道. “桓公問管子曰 吾聞海內玉幣有七筭 可得而聞乎 管子對曰 陰山之礪磬 一筭也 燕之紫山白金 一筭也 發朝鮮之文皮 一筭也 汝·漢水之右衢黃金 一筭也 江陽之珠 一筭也 秦明山之曾青 一筭也 禹氏邊山之玉 一筭也”

역은 국가간의 무역으로서 그 배경에는 고조선 내부의 지역간 교류가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⁶⁷⁾ 단군 등의 고조선 주도 세력은 지방의 유력한 세력인 하백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국제교류도 전개하였다.

고조선의 지배자인 단군과 지역의 수장인 하백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관계는 단군왕검과 하백의 정치적 관계를 해명할 수 있는 귀중한 기록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 단군왕검과 서하의 하백은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지역 수장인 서하의 하백은 왕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지역 지배층 가운데서 정치적 지위가 상승하게 되었다.

4. 맺음말

『삼국유사』 『제왕운기』에 인용되어 있는 『단군기』와 『단군본기』에 대해서는 고조선과 관련된 적극적인 연구가 거의 없었다. 본고에서 추구한 단군과 하백의 혼인설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단군기』와 『단군본기』에 의하면 단군과 혼인관계를 맺은 하백은 서하와 비서잡의 지명을 관칭하고 있었는데, 해당 지명의 위치를 각각 송화군과 대령강변의 박천군에 비정하였다. 이를 통해 『단군기』 『단군본기』는 동일한 사서가 아니었다 계보관계의 측면에서 『단군기』 『단군본기』의 편찬 시기를 가늠해 보았다. 『단군본기』는 『구삼국사』와 연관된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1199년 직전에 저술된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 단군을 민족 시조로 보는 관념은 없었으므로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 유보하였다.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고기’는

67) 최성락, 「철기문화를 통해서 본 고조선」, 『국사관논총』 33, 1992, 59쪽.

『단군기』로서 류경이 1276년(충렬왕 2) 감수국사로 복직된 이후에 편찬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고기’는 『단군기』이며 환인-[환웅=웅녀]-[단군왕검=서하하백녀]-부루의 계보를 잇고 있다. 『삼국유사』가 단군의 도읍을 서경으로 삼고 있다. 반면에 『제왕운기』는 『구삼국사』의 본기와 『단군본기』를 인용하여 환인-환웅(단웅천왕)-(?)-[손녀=단수신]-[단군=비서갑하백녀]-단군의 계보를 잇고 있으며, 그 중심은 영변의 태백산을 가리키고 있다. 흔히 알고 있는 단군신화와 달리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의 단군신화는 서로 다른 내용의 단군신화를 전한 것이다. 『단군기』 『단군본기』의 단군과 하백녀의 혼인은 다른 건국신화에 보이는 바와 같은 전개과정으로서 단군신화를 확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고조선의 지배구조 상에서 왕권을 비롯하여 여러 지배층을 하백과 대조하여 지명을 띠고 있는 하백의 위상을 살펴보았다. 단군신화에 전하는 풍백·우사·운사가 신하로 존재하였다면, 그중에서 風伯이라는 관칭과 河伯의 칭호를 대조해 보았다. 풍백·우사·운사 등이 중앙에 있었던 존재라면, 지명을 띠고 있는 하백은 여러 지역에 존재한 지배자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 하백을 비롯한 집단이 중앙의 단군과 세력을 연대한 정치적 상황을 반영해주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셋째, 단군과 하백의 혼인관계는 고조선의 지배구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고조선의 영역이나 대외관계에 집중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본고에서 추구한 서하와 비서갑 지역의 하백과 단군의 혼인에 대한 연구는 왕실의 혼인을 비롯하여 고조선 내부의 세력관계를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사료

『古記』 『檀君記』 『檀君本紀』 『三國遺事』 『帝王韻紀』 『高麗史』 『世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承政院日記』 『輿地圖書』 『寧邊府邑誌』 『史記』 『三國志』 『翰苑』

2. 논저

김성환, 『고려시대의 단군전승과 인식』, 경인문화사, 2002.
나희라,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2003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이강래, 『삼국사기 전거론』, 민족사, 1996.
이중욱, 『한국 고대사의 새로운 체계』, 소나무, 1999.
이청규, 『다뉴경과 고조선』 단국대학교출판부, 2015.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崔南善, 『六堂崔南善全集』 5, 매일신보사, 1939.

今西龍, 『朝鮮古史の研究』(일본 : 近澤書店), 1937.
藤田亮策, 『朝鮮考古學研究』(일본 : 高桐書院), 1948.
遠珂, 『中國神話通論』(중국 : 巴蜀書社(成都), 1993.

3. 논문

김남중, 『『제왕운기』에 인용된 단군본기의 저자와 성격』, 『한국학연구』 74, 2020.
高中正·朴晟佑, 「“白”與“伯” : 用字變化的微觀歷史」, 『중국문학연구』 85, 2021.
김상현, 「『古記』의 사학사적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74, 2014.
김성환,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보이는 고조선 인식의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13, 2013.
김성환, 「고조선 건국신화의 계승과 고조선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47, 2015.

- 김성환,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古記論」, 『선사와 고대』 69, 2022.
- 김용선, 「고구려 유리왕고」, 『역사학보』 87, 1980.
- 김정배, 「단군기사와 관련된 “고기”의 성격」, 『한국상고사의 제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리상호, 「단군고(檀君考)」, 『고조선에 관한 토론 논문집』, 과학원출판사, 1963.
- 서영대, 「단군관계 문헌자료 연구」, 『단군—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선석열, 「일인 관학자들의 단군신화의 불가조작설과 그 비판」, 『한일관계사연구』 76, 2022.
- 선석열, 「단군-부루-주몽 계보의 역사성과 하백녀」, 『한일관계사연구』 77, 2022.
- 오강원, 「전근대시기 단군 세계 인식의 확대 과정과 맥락」, 『진단학보』 124, 2015.
- 이강식, 「『古記』에 기록된 神市組織의 構造와 機能」, 『경북대학교 경상대학논집』 15, 1987
- 이도학, 「단군 국조 의식과 경역 인식의 변천—『구삼국사』와 관련하여—」, 『한국사상사학』, 2012.
- 이종욱, 「고조선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 『한국 고대사의 새로운 체계』, 소나무, 1999.
- 이지영, 「河伯女, 柳花를 둘러싼 고구려 건국신화의 전승문제」, 『東아시아 古代學』 13, 2006.
- 이후석, 「북한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네트워크와 상호작용」, 『한국고대사연구』 109, 2023.
- 정구복, 「고려 초기의 《삼국사》 편선에 대한 일고」, 『국사관논총』 45, 1993.
- 조경철, 「근대 이전 한국사 속의 단군인식」, 『한국사상사학』 45, 2013.
- 조범중, 「고구려사회의 단군인식과 종교문화적 특징」, 『한국고대사연구』 21, 2001.
- 조원진, 「북한지역의 단군 관련 유적과 전승」, 『단군학연구』 43, 2020.
- 주승택, 「북방계 건국신화의 체계에 대한 시론」, 『관악어문논집』 7, 1982.
- 최병헌, 「단군인식의 역사적 변천」, 『단군—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 출판

부, 1994.

최성락, 「철기문화를 통해서 본 고조선」, 『국사관논총』 33, 1992.

한정호, 「신라 사찰의 사회적 기능과 가슬갑사」, 『불교미술사학』 5, 2007.

한창균, 「고조선의 성립배경과 발전단계 시론-고고학 발굴자료와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33, 1992

홍광표, 「청도 가슬갑사의 입지조건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4-4, 2006.

高橋亨, 「三國遺事の註及檀君傳説の發展」, 『朝鮮學報』7(일본: 朝鮮學會), 1955.

那珂通世, 「朝鮮古史考-朝鮮古史史籍考」, 『史學雜誌』 5-3(日本: 日本史學會), 1894.

今西龍, 「檀君考」, 『靑邱說叢』 1, 1929.

藤田亮策, 「朝鮮發見の明刀錢と其遺蹟」, 『京城帝大文學會論纂』 7, 1937.

白鳥庫吉, 「檀君考」, 『學習院輔仁會雜誌』 28(日本: 學習院大學輔仁會), 1894.

小田省吾, 「『謂ゆる檀君傳説に就て』」, 『文教の朝鮮』 2(日本: 朝鮮教育會), 1926.

【ABSTRACT】

Another Dangun(檀君) Myth in Seoha and Biseogap

Seon, Seok-Yeol

The marriage myth between Dangun and Habaek in Dangungi(檀君紀) and Dangunbongi(檀君本紀) was extended as another Dangun myth. This paper is a study of it. Habaek, who had a marriage relationship with Dangun, had the names of Seoha and Biseogap, and the location of the names was fixed to Songhwa-gun and Bakcheon-gun. In other words, Dangungi and Dangunbongi were not the same librarian. In terms of genealogical relations, we estimated the compilation period of the two books was estimated. It was the same historical book in that Dangungi formed a relationship afterwards as a matter of later than 『Gogi』. Dangunbongi appears to have been compiled after Lee Gyu-bo's Dongmyeongwangpyeon, which is related to the Old Samguksa, was written around 1199. Samgukyusa Gojoseonjo's 『Gogi』 is Dangungi and is thought to have been compiled after Ryu Kyung was reinstated as a supervisory official in 1276. Samgukyusa Gojoseonjo's 『Gogi』 is Dangungi and continues the lineage of Hwanin-[Hwanwoong = Woongnyeol]-[Dangunwanggeom = Seo Ha-baeknyeol]. Samgukyusa uses Dangun's capital as Seokyeong. On the other hand, Jewangungi continues the genealogy of Hwanin - Hwanwoong -(?)- [granddaughter= Dansoosin] - [Dangun=Biseogap habaeknyeol]-Dangun, citing the Old Samguksa and Dangunbongi. The

Dangun myths of Samgukyusa and Jewangungi convey different myths, and the marriage of Dangun and Habaek in Danggunbongi expanded the Dangunmyth. If Pungbaek Usa Unsa, which was conveyed in Dangunmyth, existed as a subject, among them, the name Pungbaek and the title of Habaek were compared. If the existence in the center was Pungbaek Usa Unsa, Habaek, who had the name of the region, was a ruler who existed in various regions. It was an example of a political situation in which groups, including Habaek in the region, joined forces with Dangun in the center. The marriage relationship between Dangun and Habaek can provide a new perspective o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Gojoseon.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have tended to focus on Gojoseon's domain or external relations, the study of their marriage pursued in this paper may serve as an opportunity to reveal some of the power relations within Gojoseon, including royal marriages.

【Key words】

Seoha(西河), Biseogap(非西岬), Habaek's daughter(河伯女), Marriage, Dangun Myths(檀君神話), Extension

